

김영록-윤영일 초박빙 ... 지역대결 양상 변수

4·13 총선 현장, 이곳이 뜨겁다

<7> 해남-완도-진도

해남·완도·진도 선거구는 전남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이다. 선거 초반만 해도 3선에 도전하는 더민주 김영록 후보의 우세가 점쳐졌다. 하지만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녹색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의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 5일 발표된 KBC 광주방송 여론조사(표본 오차 95% 신뢰수준 ±4.4%p)에서는 김영록 더민주 후보가 36%, 윤영일 국민의당 후보가 27.7%의 지지율을 보였다. 그러나 7일 발표된 YTN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4%p) 결과에서는 더민주 김 후보가 35.5%, 국민의당 윤 후보가 34.7%로 접전 양상을, 목포 MBC의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p) 결과는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 47.1%, 더민주 김영록 후보 37.5%로 역전되기도 했다. (인용 여론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참조)

최대 변수는 선거 구도가 완도 출신의 김영록 더민주 후보와 해남 출신의 윤영일 국민의당 후보의 소지역 대결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다는 점이다.

해남의 유권자 수가 6만5000여 명으로, 완도(4만5000)와 진도(2만8000) 유권자 수를 합친 것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남 민심의 흐름은 인근 생활권인데다 오랫동안 같은 지역구로 묶인 진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여기에 국민의당 바람이 막판까지 위력을 발휘할 것인지도 변수로 꼽힌다.

일단 김영록 후보 진영에서는 지난 8년 동안 성실한 의정 활동과 꾸준한 지역 현안 사업을 챙기면서 유권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검증된 '인물론'으로 3선 고지를 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바람이 분다고는 하지만 바다 민심은 다르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그동안 김 후보가 농어민을 위해 각종 정책적 대안과 실질적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유권자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어 바다 민심은 탄탄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소지역주의에 기대는 일부 후보들에 대한 민심의 역풍과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명옥재	김영록	윤영일	이정학
나이	70	61	58	47
역력	·현 당 해남·완도·진도 당협위원장 ·전) 해남군의원	·현 국회의원 ·전) 더민주 수석대변인	·현 한국외대 조빙교수 ·전) 감사원 교육원장	·전) 해남군의원 ·전) 민주노동당 해남군위원장
공약	·노인복지청 신설추진 ·국립 김산업 연구소 설립	·광주-완도 고속도로 사업 조기완공 ·국가유공자 예우 수당 확대	·국도 및 지방도 확장공사 조기추진 ·도서간 연륙·연로 사업추진	·0-4세 무상의료 ·재벌세 도입

여론조사 결과 '엷치락뒤치락' ... 전남 최대 격전지

김영록 '검증된 인물론' vs 윤영일 '단일화 대세론'

부동층 민심에도 기대하고 있다. 김 후보 측에서는 완도에서는 상당한 우세를, 해남과 진도에서도 접전 우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들어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 후보가 그동안 성실한 의정생활을 했으나 정치적 갈등을 풀어줄만한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것이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특히, 지난 19대 총선 당시 단일 야당이었던 통합민주당 후보로 나선 김영록 의원은 해남에서 39%의 득표율을 얻는데 그쳤다는 점도 시사점이 크다.

김 후보 측 관계자는 "현재 국민의당 바람이 불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다 민심은 완연히 다르다"며 "성실한 의정 활동에 대한 지역 민심의 탄탄한 평가가 결국 승리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 진영에서는 아직 접전 상황이라며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캠프 일각에서는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 단일화에서 승리하면서 역전의 계기가 마련된 데다, 국민의당 바람이 더욱 거세지면

서 '대세론'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해남 대 완도'의 지역 대결과 함께 '국민의당 대 더민주'의 정당 대결 구도가 형성되면서 힘의 균형이 윤 후보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이다. 전반적 지역구 민심이 현상 유지보다는 '변화'를 요구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여기에 진도 출신 박지원 의원과 해남 지청장 출신의 박준선 의원 등의 지원 유세도 지지세 상승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김 후보 진영 관계자는 "완도에서는 상대적 열세지만 해남과 진도에서 압도적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며 "이미 대세는 결정됐다"며 승리를 기대했다.

한편, 해남군의원 출신의 새누리당 명옥재 후보는 이제 야당이 아닌 여당을 주목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바다 민심을 다지고 있다. 민중연합당 이정학 후보도 농어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진짜 후보를 지지해달라며 막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름다운 승복' 임내현 의원 '아름다운 동행'

안철수 대표 함께 유세 지원

국민의당 20대 총선 공전에서 광주 지역 현역의원으로는 유일하게 탈락한 임내현(광주 북구을) 의원이 당 선거운동 지원에 적극 나서는 등 '아름다운 승복'을 실현해 눈길을 끌고 있다. 경선 패배에 따른 자신의 아픔을 뒤로 하고 백의종군에 나선 것이다. 임 의원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상향 본부장을 맡아 안철수 당 대표와 함께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당 지지도 제고



와 후보들 지원을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공전에서 패한 다수의 인사들이 당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를 하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임 의원은 "인간 인자라 분한 생각도 들었지만 철세 정치인 보다는 의리의 정치인으로 남아 한 알의 밑알이 되고자 이 같은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이충행기자 golee@

4·13 총선 현장

권은희, 시민과 함께하는 'V3 선거운동' 돌입

국민의당 권은희(광주 광산 을) 의원은 10일 침담 쌍암공원에서 진행되는 '광주시민 필승대회' 이후 선거운동 종료 시점인 12일 자정까지 3일간 시민속으로 가서 이번 선거의 의미와 광산의 미래를 주민 한명 한명 만나 설명할 계획이다. 선거운동 막판 3일 동안 시민과 만나는 행보를 위해 V3 선거운동에



돌입한다. 시민을 만나고(visit)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voice) 투표혁명을 독려(vote)할 것이며, 이를 통해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과 만나는 행보를 위해 V3 선거운동에

박지원 의원, 박준영 후보 지원 유세

국민의당 박준영(영암·무안·신안) 후보는 10일 5일장과 행사장에서 박지원 의원의 지원 유세를 받으며 선거운동 총력전을 펼쳤다. 박 의원은 이날 영암 5일시장 집중유세에서 "박준영 후보의 능력은 도지사 10년, 청와대 공보수석 등을 두루 거치면서 이미 검증됐다"면서 "우리지역 발



전은 물론 호남의 자존심을 살리고, 정권교체가 이뤄지도록 박 후보를 꼭 당선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검증된 능력으로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준호, 북구 활력찾기 4가지 공약 제시

더불어민주당 정준호 광주 북구갑 후보는 10일 "광주역세권 활성화, 광주교도소 이전부지 활용 등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북구 전체의 도심공동화 현상과 정체된 북구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중장기적인 설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위해 ▲광주역 KTX진입



및 관광거점역 활성화 ▲우산동 청소년 문화청의 인성교육 특구 조성 ▲임동·신안동 일원 스포츠타운 조성 등 재개발 ▲중흥동 일원 행정복합타운 조성 등을 구체적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형석 "참여정부 호남홀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광주 북구을 후보는 10일 "국민의당은 광주시민을 분열시키는 실체도 없는 '호남홀대론' 주장에 대해 사회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보도자료를 통해 "참여정부에서 총리, 장관, 4대 기관장 106명 중 호남 출신 인사는 31명으로 총 29%를 차지했고, 2007년 3월부터 2008년 2월까지 5부 요인 중앙선관위위원장을 제외하



고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등 4명이 호남 인사였다"면서 "특히 참여정부 평균 국비예산 증가율이 6~7%인 반면 호남은 20.7%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쟁점 및 공약

더민주 김영록 후보와 국민의당 윤영일 후보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해남·진도·완도 지역구는 현안에 대한 큰 쟁점 및 이슈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일단 김 후보가 검증된 '인물론'을, 윤 후보가 '새로운 변화'를 내세우면서 충돌하고 있는 것이 이슈로 꼽히고 있다.

전반적인 쟁점 및 공약 측면에서는 재선 관록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김 후보가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다. 이를 반영하듯, 김 후보는 3선 국회의원이 된다면 국회 농업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맡으면서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등 인물론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윤 후보는 녹색 바람에 힘입어 '변화'의 이슈화에 성공했다는 평가다. 현상 유지보다는 과감한 변화를 통해 지역의 역동성과 비전을 키우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윤재갑 후보와의 단일화 승리 등에서 나타난 과감한 정치적 결단과 협상력으로 지역 민심의 정치

"땅끝·진도항 등 거점항 개발" vs "명품 브랜드 농·어업 메카 조성"

적 갈등을 풀고 감사원 시절의 행정 경험 등을 토대로 지역 농어민들의 눈물을 닦고 지역 현안을 해결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최대 변수는 소지역주의다. 완도 출신의 더민주 김 후보와 해남 출신의 국민의당 윤 후보의 대결 구도에 지역 민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승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해남의 유권자가 완도에 비해 2만여명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윤 후보가 유리할 수 있지만 김 후보 측에서는 '인물'에 대한 지역 민심의 힘이 발휘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 8년 동안 구축해 놓은 조직력도 탄탄하다는 평가다.

반면, 윤 후보 측에서는 이미 민심의 흐름은 '변화'를 선택하면서 지역 대결 구도를 넘어섰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농어업 보호 대책 마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는 기본이

며 여기에 지역의 자존심을 살리는 정치적 존재감도 보여 주겠다는 의욕을 보이고 있다.

공약으로 더민주 김 후보는 ▲직불금 확대 등 FTA 대비 농어업 대책 마련 ▲농수산물 수출 전략단지 육성 등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땅끝항·진도항·완도항·우수영항 거점항만 개발 ▲호국현장의 성역화 및 국민 역사관광지 조성 ▲남해안 해양관광 선벨트사업 핵심거점 개발 등을 내세우고 있다.

국민의당 윤 후보는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브랜드 농·어업·축산업 메카 조성 ▲고속도로, 철도건설 등을 통한 지역개발 촉진과 관광 활성화 ▲산학협동창업센터 건립·운영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섬 지역 의뢰서비스 지원 체계 강화 및 농어촌 맞춤형 복지 정책 시행 등을 약속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당뇨망막병증

당뇨병으로 말초혈관 장애가 발생해 시력이 감소하는 눈의 합병증입니다. 당뇨환자는 정밀안저 검사를 통해 당뇨망막증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치료 방법

중증성 당뇨망막병증이 심해 안구 내 망막출혈이나 유리체에 출혈이 발생한 경우 레이저를 이용해 치료하거나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합니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노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내과 / 소아형 / 라식 / 라섹 / 백내장 / 녹내장 / 양막 / 눈성형 / 노안



백원광주안과

희망은 언제나 있습니다

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회사·병원 등 법인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법인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대표변호사 곽민섭

- 광주지법 해남지원 지원장·부장판사
- 광주지방법원 판사 (회생 및 파산업무)
- 특허법원 판사
- 법학박사, 경제학석사
- 세무사, 변리사

함께 이루는 밝은 세상
법률사무소 희망미래 062·228·2266